한글의 변화를 생각하다.

글 _ ㈜윤디자인연구소 편석훈 대표

2008년 10월 9일, 우리는 562번째 한글날을 맞이한다. 흔히 '한글'이라 하면 우리 고유의 역사나 전통을 떠올리지만 내게 한글은 항상 '글로벌 시대에 맞는 최첨단의 디자인 콘텐츠'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더 나아가 한글을 기존의 틀을 깬 '세련된 고급 상품'으로 재탄생 시켜나가는 것이 나의 꿈이자 내가 경영하는 ㈜윤디자인연구소의 지향점이다.

내가 한글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1980년 중반, 그 당시로는 흔치 않던 매킨토시 컴퓨터에 대한 관심 덕분이었다. 본래 광고사업을 하였지만 업종변경을 시도하며 매킨토시 시스템 및 그래픽 사업 분야를 담당하였고 그렇게 나와 한글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당시 전자출판 시장은 매우 열악했고 수작업에 훈련된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디지털 환경은 익숙하지 않은 분야였다. 그러나, 전자출판 시장의 미래와 그에 필요한 디지털 폰트의 중요성을 확신할 수 있었기에 ㈜윤디자인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국내 DTP 시장의 영업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전자기기 중심의 다양한 플랫폼의 폰트를 개발할 수 있었다.

폰트 디자인은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디자인 콘셉트와 디테일한 디자인이 달라진다. 폰트 자체의 디자인에 그치지 않고 접목되는 모든 부분의 환경을 반영하여 표현되는 디자인, 그래서 폰트디자인을 모든 예술이 녹아 있는 종합예술에 비유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는 이에 일보 더 전진하여 그 동안 진행해왔던 한글 폰트의 끊임없는 시도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디자인 콘텐츠를 채워 나가려 한다. 디지털 폰트와 콘텐츠의 결합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또 다른 실험적인 시도를 양산할 수 있다. 엉뚱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한글 머천다이징 상품, 엔터테인먼트 시장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한글 마케팅,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오뜨꾸띄르에서 벗어난 스타일리쉬하고 세련된 한글패션 상품 등 한글을 통해 새롭게 도전해볼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나 역시 내 아이가 성장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한 길을 걷고 있고, 아버지이자 회사의 대표로서 열심히 달려왔다고 자부하지만 여전히 도전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 세월의 많은 기복들이 늘 새로운 목표와 열정 속으로 이끌었듯이 난 나의 동물적 감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직원들에게도 자유로운 창조적 아이디어를 표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를 위해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교육과 해외연수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난 지금 세계의 다양한 언어 속에서 우리 한글의 좌표를 명쾌히 하기 위한 항해를 준비하고 있다. 아직도 하고 싶고, 해야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그 일들이 모두 다양성과 가능성을 내제한 '한글'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난 오늘도 가슴 벅차고 행복하다.